(744)

조 선

주체107
(2018) 7

차 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4

활력있게 전진하는 조중친선 ·························· 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시였다 ···························· 1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접견하시였다 ···················· 11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 진행 ···················· 12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금상 수여 ·············· 14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 15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유리를 ·················· 16

자연에네르기리용에 힘을 넣어 ························ 18

룡악산기술의 전쟁로병보양소 ························· 20

인민의 문화휴식터 - 모란봉 ························· 22

승마애호가들 ····································· 26

2018년 봄철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 진행 ············· 26

미래의 장고명수들 ································· 28

신의주어린이교통공원 ······························· 30

민족의 넋과 향기를 담아 ···························· 32

모두가 친혈육이 되여 ······························ 34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 36

아시아의 첫 겨울철올림픽수상자 ······················ 38

소식 ·· 40

표지: 주체사상탑　　사진 김혁철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수산업발전에 유리한 고암지구와 답촌지구, 천아포일대에 대규모적인 어촌지구를 일떠세우며 그 선행공정으로서 고암-답촌철길을 놓을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불리한 조건과 난관을 과감히 극복하며 강원도 문천시의 석전만을 횡단하는 해상철길다리를 건설함으로써 조선의 철길건설력사의 새 경지를 개척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검푸른 날바다의 한가운데로 뻗어간 철길궤도를 바라보시며 정말 훌륭하다고, 마치 미술작품을 보는것 같다고, 당에서 관심하던 문제가 또 하나 풀렸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고암과 송전반도를 련결하는 철길이 완공됨으로써 당에서 구상한대로 답촌어촌지구건설을 빨리 다그치고 어촌지구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원만히 수송할수 있는 대통로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해제낀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석전만해상철길다리를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질적으로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볼수록 흐뭇하고 자랑스럽다고, 조국의 동해기슭에 또 하나의 귀중한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글 최광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오래전에 벌써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의 체모에 맞게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를 갈마반도에 꾸리실 휘황한 설계도를 무르익히시고 올해신년사에서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5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동해기슭의 명승지에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총궐기해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맹렬한 격전을 벌려 지대정리와 로반성토, 하부망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고 모든 건축물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다 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명사십리해변가를 따라 각양각이한 건축물들이 키돋음하며 솟아오른 건설장전경을 바라보시며 불과 몇개월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해제꼈다고 치하하시면서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하루하루가 몰라보게 비약하고 전진하는 이 땅에서 려명신화가 창조되던 시기는 이제는 먼 옛일처럼 되여버렸다고 하시면서 기적에서 더 큰 기적에로 한계를 모르고 줄달음치는 여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건설기적이 일어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공사규모와 진척정형, 자재와 설비보장대책 등 전반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식의 해안도시로 훌륭히 꾸려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명년도 태양절까지 완공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글 최광호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5월

활력있게 전진하는 조중친선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7(201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형제적린방의 친근하고 가장 귀중한 벗을 맞이하게 된 대련국제비행장은 두터운 우의의 정과 열정적인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현지시간으로 낮 12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타신 전용기가 대련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용기에서 내리시여 영접나온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정깊은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녀성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면서 환영의 인사를 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사이의 상봉과 회담이 이날 오후 진행되였다.

습근평동지가 대련에 와서 **김정은**동지를 친절하게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 따뜻하고도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한달여만에 또다시 만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이어 **김정은**동지와 습근평동지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최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는 조선반도정세흐름과 발전추이에 대한 평가와 견해, 자기 나라의 정치경제형편들이 호상통보되고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추동할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의 해결방도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 조중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승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긴밀한 고위급래왕과 조중 최고지도부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이 전례없는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조선반도주변정세추이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고 전략적기회를 틀어쥐고 조중사이의 전술적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강화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김정은**동지의 이번 방문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자신과 중국당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룩한 합의를 실천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3월에 진행하신 첫 중국방문이래 중조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습근평동지는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의사를 소통하고 조률하기 위해 친히 중국에 오신데 대해 다시한번 사의를 표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조선로동당이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데 대하여 지지하면서 **김정은**동지의 령도하에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회담은 솔직하고 신뢰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여 습근평동지가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김정은동지와 습근평동지가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조중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시는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먼저 습근평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외교적관례와 격식을 초월하여 조중 두 나라 인사들이 한집안식구처럼 어우러져 따뜻하고 진실한 정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연회장에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러넘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8일 오전 또다시 습근평동지를 만나시고 해변가를 거니시며 흉금을 터놓고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습근평동지가 방추도빈관 청도각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였다.

오찬에 앞서 **김정은**동지와 습근평동지는 차문화를 보여주는 기교를 감상하시고 중요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 우정과 존경, 흠모의 감정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속에 진행된 오찬은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특별한 동지적친분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였다.

이날 일부 수행원들은 대련동항상무구와 중국 화록그룹을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일 오후 체류일정을 마치시고 전용기로 대련을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귀국길에 오르시면서 습근평동지에게 감사서한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력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조중최고위급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빛나게 계승해나가며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선택인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글 김태현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주체107(2018)년 5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를 만나시고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5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용기로 대련을 출발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5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3일 조선을 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동지를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왕의동지와 한달여만에 다시금 상봉한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왕의동지와 담화를 하시였다.

석상에서 왕의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와 형제적중국인민에게 드리는 자신과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의 뜨거운 인사를 전해줄것을 당부하시였다.

접견에서는 조중 두 나라사이의 단결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킬데 대해서와 조선반도정세흐름의 발전방향과 전망을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왕의동지와 훌륭한 담화를 나누면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조중의 견해를 재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왕의동지와 뜨겁게 포옹하시고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글 김태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9일 조선을 방문한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를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무장관의 조선방문을 환영하시고 그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대통령의 구두메쎄지를 직접 전달하며 조미수뇌회담준비를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바쁘신 시간을 내여 만나주신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석상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동지께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구두메쎄지를 정중히 전달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의 구두메쎄지를 들으시고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현재 전세계의 조미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첨예한 반도지역정세에 대한 평가와 견해,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한 량국 최고지도부의 립장과 의견을 교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여 조선에 억류되여있는 미국인들을 석방하여줄데 대한 미합중국 대통령의 공식제기를 수락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으로 특사를 실시하여 송환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고 만족한 결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자신들의 평양방문기간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주시였으며 오늘 매우 유익한 회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룩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무장관으로서 조미수뇌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고 따뜻이 바래우시였다.

글 김태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5월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 진행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주체107(2018)년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 통일각에 나오시여 문재인대통령과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였다.

회담장인 판문점 통일각에는 문재인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통일각에 도착한 문재인대통령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상봉의 인사를 나누시였다.

두 수뇌분들께서는 한달만에 력사적인 장소에서 또다시 력사적인 상봉을 하게 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회담에 앞서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 통일각 방명록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위원장과 함께! 2018. 5. 26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글을 남기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굳게 손을 잡고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김정은**동지와 문재인대통령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과 현재 북과 남이 직면하고있는 문제들, 조미수뇌회담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한 립장을 표명하시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 대화를 적극화하며 지혜와 힘을 합쳐나갈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방명록에 글을 남기였다.
주체107(2018) 년 5월

김정은동지와 문재인대통령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주체107(2018)년 5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6월 12일로 예정되여있는 조미수뇌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대통령의 로고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력사적인 조미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회담에서 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께서 격식과 틀이 없이 마음을 터놓고 중대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신 이번 상봉은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또 하나의 력사적인 계기로 된다.

글 김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주체107(2018)년 5월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금상 수여

불멸의 꽃 **김일성**화에 수여된 금상과 상장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수여된 금상과 상장

제15차 중국 두견화전시회에서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각각 금상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중국 두견화전시회는 중국화초협회 두견화분회가 조직하는 제일 큰 규모의 전시회이다.

이미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주체102(2013)년 중국 강서성 정강산시에서 진행된 제11차 중국 두견화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여받았었다.

중국 사천성 성도시 비도구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도이췰란드, 벨지끄 등 여러 나라들과 중국의 16개 성의 32개 도시의 108개 단위가 참가하였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아름다움과 진귀함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깊은 감명을 자아내였다.

글 김은경

중국의 길림에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민족최대의 뜻깊은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중국과 기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중국의 길림, 대련, 단동에서는 지난 4월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와 **김일성**화온실 참관식이 진행되였다.

중국 길림두삼경제무역공사와 훈춘태리국제무역유한공사의 공동주최로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불멸의 꽃을 전시하고 받은 상장자료들과 불멸의 꽃을 소개하는 화첩들도 전시되였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길림땅에서 불멸의 꽃 전시회가 진행된것은 중조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하였다.

단동과 대련에서 진행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에서도 참관자들은 조선의 명화들인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볼수록 황홀하며 첫 눈에 끌리고 저도모르게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감화력이 큰 꽃들이라고 하면서 불멸의 꽃들에 대한 매혹을 금치 못해하였다.

인도네시아와 기네에서도 불멸의 꽃 **김일성**화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중국의 료녕성과 흑룡강성, 로씨야의 모스크바와 싼크뜨-뻬쩨르부르그, 남아프리카의 음푸말랑카주, 베네수엘라의 까라까스 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전시회와 도서, 사진 및 미술수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글 강수정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남아프리카의 음푸말랑카주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유리를

남포시에 자리잡고있는 대안친선유리공장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요구되는 유리의 많은 몫을 생산보장한 자랑찬 연혁을 가지고있는 건재생산기지이다.

주체94(2005)년 10월에 조업한 공장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 발휘된 자력자강의 정신과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으로 하여 10여년동안에 건설, 의료, 식료, 화학 등 여러 부문들에 필요한 각종 유리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건재기지로 전변되였다.

강질유리, 열선반사유리, 겹층유리, 그림유리, 문양유리, 흐린유리, 중공유리를 비롯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리들은 종류가 다양할뿐아니라 질이 높은것으로 하여 그 수요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오늘 공장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그 관철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높은 생산열의로 들끓고있다.

판유리직장이며 강질유리직장, 선광직장, 원료직장, 수소질소직장, 생필직장 등 공장의 그 어디에서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주인답게 하고있는 로동자들의 일본새로 하여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이 그칠줄 모르고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이자 생산이라는 원칙에서 과학기술학습에 힘을 넣으면서 새 기술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모두가 탐구하고 지혜를 바쳐감으로써 판유리직장에 아류산가스생산공정을 새로 꾸리였으며 곡면겹층유리생산방법에 성공하고 주원료인 규사에서 철성분을 제거하는 선광공정을 개조하여 유리의 무색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유리생산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석의 산화를 막고 적게 쓰면서도 판유리의 질을 높일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것을 비롯하여 공장에서는 최근에만도 수십건의 새 기술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열의속에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생산된 각종 유리들은 전국 각지의 중요건설장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김충복

서랭로

랍변기

열선반사유리생산공정

강질유리직장

제품출하장

자연에네르기리용에 힘을 넣어

경영활동과 문화정서생활 등을 자연에네르기에 의거하여 진행하고있다.

조선에서 태양열과 풍력,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는 사업이 보다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평양이동통신운영국에서도 자연에네르기를 경영활동과 문화정서생활에 리용하고있다.

ㄷ자형의 아담한 기업소청사벽체와 지붕들마다에 건축양상에 어울리게 태양빛전지판과 태양열물가열기들이 설치되여있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모든 사무실과 봉사실의 설비들은 물론 목욕탕과 수영장, 종업원식당, 실내체육장, 무난방태양열온실의 전력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그리고 태양열물가열기를 리용하여 겨울철에 종업원들의 휴계실난방을 보장하고있으며 건물청사의 지붕에 궁륭식으로 일떠세운 무난방태양열온실에서는 여러가지 남새생산과 함께 양어수조의 물온도를 보장함으로써 많은 물고기들을 키우고있다.

자연에네르기로 생산한 전력으로 년간 전력수요의 80%이상을 보장하고있는 운영국에서는 오늘 통신보장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자연에네르기로 보장할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그들은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와 원산통신기계수리공장에서 개발한 최대전력점조종기술(MPPT)을 비롯한 선진기술들을 받아들여 설비들을 갱신하는 한편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능력을 더욱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자연에네르기의 덕으로 운영국종업원들의 생산문화, 생활문화는 날로 향상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룡악산기슭의 전쟁로병보양소

얼마전 우리는 풍치수려한 룡악산기슭에 자리잡은 평양시전쟁로병보양소를 찾았다.

푸르싱싱하게 자란 소나무들, 미풍에 실려오는 송진내와 골안을 울리는 폭포소리, 맑고 청신한 공기…

아름다운 경치와 조화를 이룬 아담하면서도 독특한 보양소건물을 바라보고있던 우리는 마중나온 리성실소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와 모든 도들에 전쟁로병보양소를 건설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을뿐아니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여 로병들의 휴식과 치료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종합적인 보양기지가 일떠섰다고 하면서 우리를 안내하였다.

전쟁로병보양소에는 보양생들의 년로한 신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꾸려진 호실들, 각종 운동기재들이 갖추어진 운동실, 치료실, 오락실, 도서실 그리고 리발실, 미용실,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까지 번듯하게 꾸려져있었다.

먼저 들어선 곳은 1층 3호실이였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전쟁로병들은 지금 텔레비존을 보고있다고 하면서 전쟁로병보양소의 모든것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꾸려져있고 봉사원들도 얼마나 친절한지 꼭 제집에 와있는것같다고 말하였다.

이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유쾌한 웃음소리에 호기심이 끌려갔더니 1층 8호실에서 전쟁로병들이 사진들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고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양소에서의 즐거운 나날들을 찍은 기념사진들인데 집에 돌아가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이어 우리는 운동실에서 각종 운동기재를 리용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오락실에서 장기, 꼬니, 윷놀이 등으로 흥에 겨워 시간가는줄 모르는 로병들의 모습들을 볼수 있었다.

치료실에서 방금 검진을 끝낸 한 전쟁로병은 여기에 와서 며칠만에 혈압이 정상이 되였다고, 어제 오후에는 초음파치료실에서 덕수까지 맞았다고 활기에 넘쳐 자랑하는것이였다.

모두가 80고령의 나이였지만 청춘의 모습을 되찾은것만 같았다.

대성구역 룡흥3동에서 사는 전쟁로병 김죽송은 《우리 전쟁로병들이 조국수호의 용사들로 어제도 오늘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넘친 삶을 누릴수 있은것은 바로 어머니조국이 우리모두의 삶을 보살펴주고 빛내여주기때문이다. 집에 돌아가면 자식들이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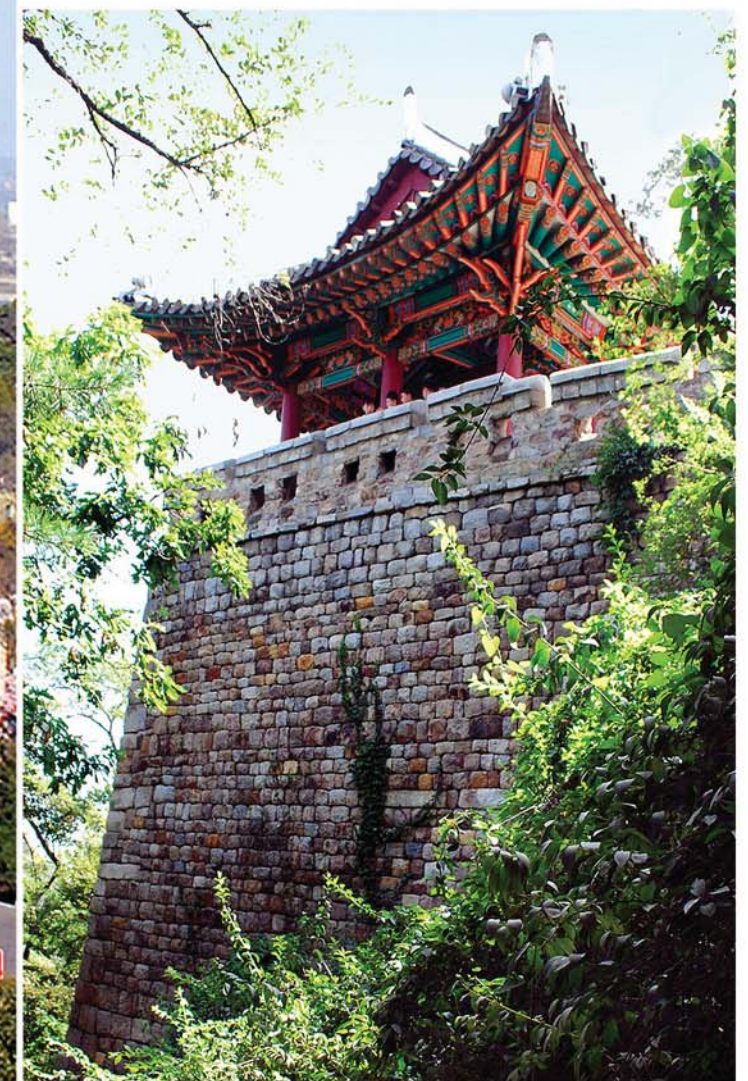
보양소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에 참가하여 피로써 조국을 지킨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교양자로 더없이 존경하며 높이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그에 자기들의 본분을 다해나가는것으로 보답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전쟁로병보양소에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바라며 우리는 보양소를 떠났다.

사진 리명국 글 김은경

로병들의 휴식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보양소에서 보양생활을 하고있는 전쟁로병들

인민의 문화휴식터 - 모란봉

모란봉에는 산수를 자랑하는 봉우리들과 조선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전하는 을밀대, 최승대 등 유적들도 많다.

수도 평양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기슭에 솟아있는 모란봉은 마치 모란꽃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예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여온 명승지이다.

여러개의 봉우리들과 골짜기들이 잇달려있고 동쪽으로는 청류벽을 감돌아 대동강이 흘러 모란봉의 경치는 언제나 이채롭다.

특히 을밀대의 봄맞이와 부벽루의 달맞이는 모란봉의 제일가는 경치로하여 예로부터 평양 8경의 하나로 일러오고있다.

모란봉에는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 건축술을 보여주는 유적들인 내성, 외성을 비롯하여 을밀대, 최승대, 칠성문, 청류정, 부벽루, 전금문, 현무문, 동암문 등 조선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슬기로운 문화를 전하는 유적들도 많아 명승지의 풍치를 더해주고있다.

아름다운 모란봉은 오늘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져 더욱 이름높다.

옛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며 곳곳에 정각들이 세워져있고 그네터와 널뛰기터, 씨름터, 소동물사와 인공폭포도 꾸려놓아 모란봉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류다른 정서를 안겨준다.

록음속에 솟아있는 모란봉극장과 **김일성**경기장, 불야경을 이루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은 찾아오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로 하여 언제나 흥성이고있다.

곳곳에 펼쳐지는 흥겨운 춤판들과 신랑신부를 싣고 달리는 꽃마차, 그 모든것을 사진기에 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란봉이 낳는 또 하나의 절경이다.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꾸려진 모란각과 청량음료점 등 여러 봉사시설들에서는 사람들이 시원한 대동강맥주와 갖가지 청량음료들을 봉사받으며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산천경개 수려한 모란봉의 그 어디에서나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강수정

록음이 우거진 모란봉에는 **김일성**경기장과 모란봉극장,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있다.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꾸려진 모란각과 곳곳에 세워진 정각들에서는 기쁨에 넘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승마애호가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고 향유하도록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으로 전통적인 승마풍습이 적극 장려되고있는 조선에서는 지난 4월 봄철승마애호가경기가 진행되였다.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조선마술협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경기에는 협회 회원들과 승마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장애물뛰여넘기경기, 작은말유희경기, 애호가경마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능란한 말조종기술로 아슬아슬한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선수들의 대담하면서도 재치있는 기교동작들은 관중들의 환성을 자아내였다.

평시의 승마운동을 통하여 련마해온 자기들의 마술솜씨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앞서거니뒤서거니 기운차게 주로를 내달리는 선수들의 경마모습은 관람자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유치원어린이들의 말타기 모범출연과 청소년학생들의 작은말유희경기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봄철승마애호가경기에서는 미림승마구락부 기마수들의 경마에 대한 추첨도 진행되였다.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봄철승마애호가경기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진 조선민족의 우수한 승마풍습을 적극 살려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현

봄철승마애호가경기는 장애물뛰여넘기경기, 작은말유희경기, 애호가경마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2018년 봄철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 진행

사진 조선중앙통신

장애자와 애호가부류, 나이별에 따르는 애호가 남, 녀부류, 애호가 혼성부류로 나뉘여 진행된 경기에서 선수들은 다양한 탁구기술을 보여주었다.

미래의 장고명수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장고소조는 학생소년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과외소조들중의 하나이다.

조선민족의 고유하고 독특한 장단들의 멋들어진 울림으로 사람들의 흥취를 돋구어주는 장고연주는 학생소년들을 그 어느 소조보다도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

하루 공부가 끝난 오후시간이면 소조실은 장고를 배우려 온 학생들로 꽉 차군 한다.

그러나 훌륭한 장고명수로 되기까지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

특히 음정이 없는 타악기인 장고로 립체감이 나면서도 흥취있는 소리와 가락이 나오도록 멋들어진 울림을 내는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고유한 장단의 특성에 맞게 그 멋이 몸에 푹 배인 연주자세를 갖추는것도 그들에게 나서는 힘든 과제의 하나이다.

그들은 이 모든것을 30여년동안 수많은 장고명수들을 키워냈으며 장고독주 《출전북을 울려라》, 장고합주 《제일 좋은 내 나라》를 비롯한 수십편의 장고작품들을 창조한 공훈교원 리련화의 세심한 지도속에 터득하고있다.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워진 그의 교수계획은 소조원들모두가 빠른 기간에 연주기량들을 습득할수 있게 하고있다.

재능의 꽃을 활짝 피워가는 장고소조원들은 공연무대들에 펼친 장고제주 《우리 장단 좋아요》, 장고와 북 《사랑의 꽃수레를 탔네》 등의 많은 종목들에서 다양한 성격의 민족장단들을 잘 살리고 상모를 돌리면서 빠른 넘겨치기를 하는것과 같은 훌륭한 연주기량들을 보여주었다.

지난 기간 소조에서는 나어린 장고명수들이 많이 배출되였으며 중국, 중국홍콩, 노르웨이, 단마르크 등에서 진행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들에서의 장고소조원들의 멋들어진 장고연주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군 하였다.

오늘도 장고소조로는 미래의 장고명수가 될 꿈을 안고 많은 학생소년들이 찾아오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김선경

신의주어린이교통공원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새로 꾸려진 어린이교통공원이 날마다 흥성이고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유치원으로부터 고급중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수업시간과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교육강령에 반영되여있는 교통안전지식을 체득하는것과 함께 자전거타기 및 자동차운전방법 등도 배우는 교통안전교육교양거점이다.

크게 교통안전교육관과 야외교통안전실습장으로 구성되여있는 이 공원의 총부지는 12 000㎡이다.

교통안전교실들과 륜전기재모의훈련장, 전자도서실, 립체률동체험실과 같은 여러 교육장소들과 시설들이 있고 복도와 홀, 휴식장소와 같은 공간들에 다양한 형식의 직관물들이 설치되여있는 교통안전교육관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보행자와 주행자들이 지켜야 할 교통안전규정과 초보적인 륜전기재운전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우고있다.

어린이교통안전놀이장에 가면 네거리, 세거리, 골목길구역 등에 펼쳐진 도로전경그림우에 올라앉아 도로표식판모형들과 륜전기재모형, 인형 등을 가지고 하는 교통안전규정놀이에 여념이 없는 유치원어린이들을 보게 되고 모의훈련장에 이르면 자동차모의기재로 운전법과 교통규정을 익혀가는 많은 남녀학생들을 볼수 있다.

전자도서실에서도 학생소년들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여러가지 상식자료들을 자기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선택하여 열람하고있다.

1선, 2선, 3선 도로들과 경사면도로, 자전거길, 공중다리 등 거리와 도로주변의 구조물과 시설들을 축소하거나 모의하여 설정한 다양한 교통정황이 펼쳐져있는 야외교통안전실습장에서 그들은 이미 배운 교통안전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있다.

운전대를 척 쥐고 운전하는 사내애들이며 서로 손을 잡고 건늠길을 건너가는 처녀애들, 자전거를 타는 학생소년들모두가 교통규정을 되새긴다.

야외교통안전실습장에는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실습과정에 휴식도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유희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하기에 아이들은 물론 그들과 함께 공원을 찾는 부모들 역시 하나같이 말한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사진 홍태웅 글 최호

어린이들에게 네거리, 세거리들에서 지켜야 할 교통안전규정을 해설해주고있다.

민족의 넋과 향기를 담아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발전하여온 조선옷은 온화한 자연기후조건과 조선사람의 체질, 맑고 우아한것을 좋아하는 민족적정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온돌방에서 생활하는 생활상특성 등을 반영하고있다.

조선옷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조선민예련합상사 민족의상제작단은 전통적인 민족적형식에 현대적미감을 조화롭게 담은 조선옷을 잘 만들어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는 단위이다.

제작단에는 준비실과 제작실이 있는데 다녀성들로 구성되여있으며 그들은 조선옷의 고상함과 우아함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고있다.

제작단에서는 당의, 혼례복, 일상옷, 명절옷, 어린이옷 등 남녀조선옷제작에서 천색갈선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꽃무늬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색과 크기, 모양을 그대로 옮기면서 민족옷의 고유한 선미를 특색있게 잘 살리고있다.

제작공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고있는 제작단에서는 치마저고리의 무늬형상을 붓으로만 형상하던 종래의 방법만이 아니라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무늬의 섬세함과 제품의 문화성을 보장하고있으며 새로운 재료로 형상함으로써 의상제작의 속도와 함께 질을 높이는데서도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있다.

녀성특유의 감각과 섬세함으로 선 하나, 수하나, 노리개 하나도 품을 들여 정성껏 만들고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선옷을 발전풍부화하기 위하여 깊은 연구와 정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제작단성원들이기에 이들이 만든 치마저고리들은 해마다 진행하는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15차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는 노을빛색에 해당화꽃을 수놓고 곡선미를 잘 살린 녀자례복-당의와 민족적형식을 잘 반영한 록의홍상, 사과꽃을 수놓은 자주색저고리에 검정치마 일상옷이 모두 1등을 함으로써 제작단에서 내놓은 치마저고리들이 이목을 끌었다.

민족의상제작단 단장인 김혜옥은 《민족의 넋과 향기를 담고있는 조선옷을 제작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제작단성원들은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조선옷의 매력과 멋을 더욱 살려나갈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사진 리철진 글 강은정

조선사람의 체질과 민족적정서에 맞는 조선옷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모두가 친혈육이 되여

심한 화상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온 윤성민어린이

윤성민어린이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겠다고 달려온 함흥의학대학의 청년학생들

지난 1월초 함경남도소아병원으로는 한 나어린 구급환자가 실려왔다.

놀음에 정신을 팔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전신 30%에 2-3도화상을 당하여 군인민병원으로 파송되였다가 이곳까지 오게 된 환자의 이름은 윤성민, 나이는 4살이였다.

병원에서는 즉시 의사협의회가 열리고 담당치료조가 조직되였으며 구급대책이 취해졌다. 이어 집중치료가 시작되였다.

담당의료일군들은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한 중앙병원들과의 련계밑에 옳바른 치료방도들을 세우고 환자상태가 시시각각 변화되는데 따라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한 치료활동을 벌리였다. 2차에 걸치는 피부이식수술과정에 여러차례의 수혈과 약물, 영양제투입이 진행되였다.

담당치료조와 함께 병원안의 모든 의료일군들이 떨쳐나섰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함흥의학대학의 청년대학생들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저마다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겠다며 수술장문앞에서 붐비는 사람들중 이미전부터 성민이나 금야군 연풍리의 평범한 농장원들인 그의 부모를 알던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어린 성민은 물론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지성이 기울여지고있는지 알리 없었다. 의사선생님들이 왜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기까지 하면서 자기를 돌봐주는지 그리고 어째서 이전에는 몰랐던 형님, 누나들이 자주 병원으로 찾아와 그림책도 읽어주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해주면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는지 몰랐다.

마침내 화창한 4월중순 어느날 완쾌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퇴원하게 되였다. 마음껏 다시 뛰놀게 된 성민의 얼굴은 그늘 한점 없이 밝았는데 아들의 손목을 잡고 몇번이고 돌아서서 거듭거듭 허리숙여 인사를 보내는 부모들의 두볼로는 맑은 이슬이 흘러내렸다.

바래워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초 최중증환자로 입원한 함흥시 회상구역의 김대성어린이를 120여일간에 걸쳐 집중치료하여 끝끝내 완쾌시키던 과정도 역시 이러하였다.

이 미담들의 주인공들인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함흥시민들, 청년대학생들을 만나면 누구나 범상하게 말한다.

《우리는 모두가 한가정, 친혈육과 같은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것입니까.》

이들과 더불어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는 소행들이 자주 발현되고있다.

사진 김설희 글 최호

수술후 완쾌된 성민이를 찾아온 대학생 형님, 누나들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중앙병원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며 치료방도를 세워가고있는 의료일군들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응석꾸러기였던 우리 충성이가 유치원생활을 시작해서부터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절로 우리 말과 악보를 척척 읽고 또 인사도 잘하니 동네사람들이 칭찬한답니다.》

평양시 중구역 서문동에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는 중구역 신양주유치원에 자식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달라지는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유치원에 대한 자랑부터 앞세우군 한다.

60여년의 연혁을 가진 신양주유치원은 기자, 작가, 예술인, 사무원 등 자식들을 돌볼 시간이 부족한 녀성들을 위해 나온 유치원으로서 어린이들의 또다른 집이라고 할수 있다.

5~6살 나이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에서 유치원생활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곳 교양원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밝고 명랑하게, 지혜롭고 재능있는 나라의 기둥감들로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서 지능을 키워주며 소질과 취미에 따라 재능을 꽃피우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를 통한 지능계발방법과 직관물을 리용하여 비교하면서 인식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비롯하여 유치원교양원들이 창안한 교육교양방법들과 교편물들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높여주는데서 은을 내고있다.

유치원의 교양원들은 자질향상을 위해 주마다 시범수업과 분과교재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월에 한번씩 진행하는 실력판정을 통하여 다재다능한 실력을 겸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해가고있다.

하기에 이 유치원을 다닌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며 특히 청음을 누구나 다 자신있게 하고있다.

유치원의 악기실과 무용실에서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 어린이들이 앞날의 음악가, 무용가들로 훌륭히 자라고있는데 유치원의 무용소조는 전국아동음악방송예술무대와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에서 특색있는 민속무용으로 언제나 우승을 쟁취하고있다.

원장 김영순을 비롯한 교양원들은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되여 생활에도 세심한 관심을 돌리며 진정을 바치고있다.

집과 떨어져있는것만큼 어린이들의 심리에서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언제나 다심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안고 유치원의 하루하루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재미나게 흘러가도록 한다.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아이는 없는가를 알아보는것을 생활화하고있으며 매일 건강검진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어찌보면 엄마같고 다시 보면 선생님이 되는 교양원들의 사랑과 정이 있어 이곳 유치원어린이들은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강은정

유치원에는 어린이들의 지능을 높여주기 위한 놀이감들과 여러가지 유희기재들이 갖추어져있다.

어린이들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재능을 꽃피워준다.

아시아의 첫 겨울철올림픽수상자

조선의 체육인들속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초 세계속도빙상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속도빙상선수 한필화도 있다.

사람들은 그가 주체52(1963)년 2월 일본에서 진행된 세계속도빙상선수권대회 녀자 500m경기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주체53(1964)년 2월 제9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3 000m경기에서 2등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이것은 1924년부터 40년동안 계속되여오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유럽사람들이 메달을 독점하던 신화를 깨고 아시아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메달을 쟁취한것으로 되였던것이다.

지금도 제9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였던 오스트리아 인스부르그의 빙상경기장에 가면 한필화의 이름이 올림픽상징 봉화탑에 새겨져있다.

그는 주체55(1966)년 2월 노르웨이에서 있은 세계속도빙상선수권대회 3 000m경기에서 3등, 주체56(1967)년 프랑스에서 진행된 제10차 준동기올림픽경기대회 1 500m경기에서 3등, 3 000m경기에서 2등을 한것을 비롯하여 선수생활기간 국제경기들에서 수십여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다.

나라에서는 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그를 **김일성**상계관인, 인민체육인으로 내세워주었다.

선수생활을 마친 그는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하여 경험과 리론을 겸비한 체육전문가의 자질을 훌륭히 갖추었다.

그후 그는 당시의 평양시체육선수단 속도빙상감독,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책임부원, 체육기술협회 빙상서기장, 체육기술련맹 부위원장 등 체육부문의 책임적인 위치들에서 나라의 빙상경기종목을 발전시키는데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 나날에 공훈체육인들인 송화선, 박금련을 비롯한 수많은 속도빙상선수들을 키워냈다.

그는 감독들과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군 한다.

《세계의 하늘가에 우리의 공화국기가 더 높이 휘날릴 때 조국의 존엄과 위용도 높이 떨쳐지는것이다. 그러자면 우리모두가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70이 훨씬 넘은 나이이지만 오늘도 체육성 부원으로, 아시아빙상동맹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나라의 체육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선경

제11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나라의 빙상종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한필화

아시아빙상동맹 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는 한필화 (왼쪽으로 첫번째)

한필화녀성의 가족

소 식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브라질 전 대통령인 국회상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동지가 인디아외무성 대표단을 만났다.

조선수리아경제공동위원회 제10차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이딸리아-조선친선의회그루빠 위원장일행이 평양교원대학을 참관하였다.

중국 동방의문화개척발전협회대표단이 평양미술종합대학을 참관하였다.

제2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공식유희달리기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2018년 국제조산원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습지의 보호와 합리적리용에 관한 민족토론회 진행

낸곳：© 조선화보사 2018 주소：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한형주 13606-1881137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뒤표지：천리마동상 사진 김혁철